

# 산촌의 전통적 기능과 그 변화

정치영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 1. 머리말

촌락의 기능이란 주민들이 영위하고 있는 生産活動이나 촌락의 設立目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촌락의 存立基盤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山村은 산지에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촌락들이나, 山地農業은 평지의 그것에 비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지니고 있어, 대체로 농업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촌에서는 일찍부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농업 외에 다양한 生業이 전개되어 왔고, 대개 이러한 생업들은 山林을 이용한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토지자원을 이용한 生業의 複合은 촌락의 기능에 있어서 농촌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지에는 산이 지닌 상징적 의미, 교통의 불리성 등으로 인해 종교기능이나 교통기능을 지닌 촌락이 형성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남부를 대표하는 산지인 지리산지의 산촌을 연구대상으로, 농업 이외에 산촌이 지녔던 전통적인 기능들을 살펴보고, 이와 동시에 197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 쇠퇴에 따라 산촌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 2. 지리산지 산촌의 전통적 기능

### 1) 산림자원의 활용

지리산지에서는 다른 산지와 달리 조선후기 이후 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고 주민들도 생계의 대부분을 여기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평지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불리한 농업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또한 산지의 특성상 高度에 따라 단위면적 당 生産性의 차이가 심해서 고지대의 경우 식량의 자급도 쉽지 않았고, 이러한 현상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산지와 마찬가지로 지리산지 주민들도 농업활동만으로는 生業基盤을 마련하기가 곤란하였으므로, 생활의 안정을 구하고 특히 가계에 필수적인 현금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山地의 특성을 살린 농업이외의 또 다른 生業을 찾아야만 했고, 그 대부분은 풍부한 山林資源에 의존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생업들이 처음부터 농업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리산지에서는 이러한 생업들 중 농업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것도 있으며, 농업이 아니라 산림에 의존한 생업을 그 기능으로 삼아서 출발한 촌락도 많다. 즉 지리산지에서는 이러한 농업외적인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촌락이 농업을 주기능으로 한 촌락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성립되었으며, 농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농업적 기능보다는 이러한 산림자원에 의지한 촌락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렇게 산림자원에 의존하는 기능들을 지닌 촌락은 대개 주변의 자원이 고갈되면 새로운 산림을 찾아 주기적인 이동을 해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山村을 '原始型 山村'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조선후기 들어 인구가 급증하고 경지개간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원시형 산촌'들은 차츰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농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농업이 주기능이 되고 본래의 생업은 부수적인 기능이 되는 촌락으로 탈바꿈하거나, 혹은 농업을 주기능으로 하는 규모가 큰 촌락에 흡수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농업을 주기능으로 성립된 촌락에서도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생업은 농업을 보조하는 副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지리산지의 산촌들이 산림에 의존하여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기능은 狩獵, 버섯·산나물·種實·약초 등 山林副産物의 채취, 製炭, 製紙, 木工藝 등 매우 다양하였다. 이러한 기능들은 조선시대 地誌와 선인들의 기행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2) 종교적 기능

앞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古代부터 산과 언덕과 같은 높은 장소를 성스러운 곳으로 인식해왔으며 이러한 山地를 神들의 거주지 또는 가장 바람직한 修行의 장소라 간주했기 때문에 여기에 종교적인 기능을 가진 촌락이 들어서는 예가 많았다. 지리산지에 종교적 기능을 지닌 촌락이 형성된 것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三國時代 이후 지리산을 文殊菩薩의 도량이라 하여 지리산지에는 크고 작은 많은 寺刹들이 들어섰으며, 이들 사찰들을 중심으로 寺下村의 성격을 띤 촌락들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지리산지의 경우 당시 존재했던 사찰 중 규모가 크고 저명한 것들은 대개 지리산 기슭의 비교적 평탄한 곳에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그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유입과 촌락의 형성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지리산지 내부의 촌락 형성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찰 소유의 광활한 농경지를 기반으로 상당한 규모의 인구가 모여 사는 일반적인 사하촌의 모습은 아니지만, 많은 사찰들이 몰려 있었던 현재의 하동군 화개면·함양군 마천면 일대에는 사찰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상당수가 승려로 구성된 소규모 촌락들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李陞의 『靑坡集』에 따르면, 화개면에는 조선전기에도 ‘이루 다 적지 못할 만큼’ 많은 사찰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주재하는 승려의 숫자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서는 晉州 소속의 花開·薩川部曲의 존재이다. 이 두 부곡은 『高麗史』·『世宗實錄地理志』 등에 ‘그 長이 머리를 깎은 僧首’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부곡장이 승려 또는 사찰과 연관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로는, 南孝溫의 『智異山日課』에 ‘矢川の 縣吏는 지리산에 佛敎가 확산되길 바라여, 벼슬이 戶長·記官에 이르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으며, 遞任되면 다시 일반인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지리산은 신라시대부터 五岳 중 南岳으로 신성시되어 매년 나라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우리나라 巫俗 信仰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무속인들이 기도처로 이용해 왔으며, 현재의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백무동에는 조선시대 무당과 박수들로 구성된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다. 1790년 지리산을 여행했던 李東沆의 『方丈遊錄』에 의하면, 이곳에 8-9가구의 상주하는 堂主들로 이루어진 촌락이 있었고, 이들은 다른 生業은 전혀 영위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를 드리러 오는 무당들이 가져오는 재물만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촌락이 정확히 언제 없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백무동에서는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거의 무당들로만 구성되어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던 촌락이 존재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 3) 교통기능

지리산지에는 일찍부터 일종의 교통촌락이라 할 수 있는 酒幕村이 존재하였다. 주막촌은 여행객에게 술과 음식,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 기능이었던 주막들이 몇 채 모여 하나의 촌락을 형성한 것으로, 평지의 주막촌이 일반적으로 17·18세기부터 定期市場과 함께 교통로의 結節點이나 連繫地點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하나의 地域中心地로서 매우 변화한 모습을 띠게 되었는데 반해, 산지의 주막촌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즉 徒步交通에 의존하던 당시로서 산은 교통의 커다란 장애요소였고, 산을 넘는데 가장 애로가 적은 곳은 山稜의 鞍部이므로, 거기에는 고갯길이 개설되었다. 이러한 고개 중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는 고개 마루나 고개 아래쪽에 2-3 가구의 주막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촌락이 들어서 있었다. 지리산지에도 북사면의 함양·남원 사람들이 하동·구례 등지로 소금 등의 생필품을 구하러 다닐 때 이용하던 벽소령·임걸령·시암재·성삼재·장터목 등의 고개가 주능선에 개설되어 있었고, 그 밖의 지능선에도 많은

고개들이 있었다. 이러한 고개들은 대체로 고도가 높고 험해 사람들이 거주하기 곤란하므로, 주막촌은 고개 아래 부분의 산길 옆이나 도로가 분기하는 지점에 들어서는 것이 보통이었고, 농업을 주기능으로 하는 촌락보다 고도가 높은 곳에 고립되어 입지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 주막촌들은 생필품을 구하러 왕래하는 지리산지 주민들과 산촌 주민의 생산품을 수집하러 다니던 행상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산판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상대로 술을 담가 팔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주막촌은 다른 어떤 기능의 촌락보다 빨리 그 기능을 상실하여, 특히 지리산지 내부에 있던 주막촌들은 대부분이 해방이후 아예 없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고도가 높고 외딴 곳에 자리잡은 경우가 많아 한국전쟁을 거치며 마을이 완전히 파괴된 탓도 있지만, 자동차교통이 발달하면서 산간의 험한 고갯길이 거의 이용되지 않게 되었고 입지공간이 협소하여 경지개간을 통해 농업적 기능을 가지기에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3. 새로운 산촌 기능의 모색

#### 1) 농업의 쇠퇴와 변모

지금까지 살펴본 지리산지 山村의 전통적인 기능들은 1970년대 이후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것은 인구의 감소로 인한 촌락의 過疎問題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과소현상은 지리산지 내에서도 촌락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기능 면에서 기존의 기능들이 약화 또는 변화되거나,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촌락이 있고,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새로운 기능도 얻지 못함으로써 황폐화된 촌락도 발생하였다. 지리산지 촌락들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기능 중 가장 크게 그리고 급속하게 약화된 것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것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이미 1960년대 후반에 그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 원인도 인구감소로 인한 것보다는 國立公園의 지정·도벌의 엄중한 단속 등 정책적인 것에 있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기능 중 1970년대 이후의 인구감소에 의해 두드러지게 위축되거나 변화한 것은 바로 촌락의 주기능이었던 농업이었다.

지리산지의 농업은 평지의 그것에 비해 열악한 자연조건 때문에 土地生産性도 낮지만, 거의 모든 농경지가 경사지에 조성되어 있고 또한 분산되어 있어서 평지에 비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히 勞動生産性이 매우 떨어진다. 평지의 경우에는 農業의 機械化 등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인구감소에 따른 농업기능의 저하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산지에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즉 처음부터 존재했던 산지농업의 취약성은 평지농업의 技術的 진보에 비례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耕地의 放棄에 의해 농업기능을 상당히 또는 완전히 상실한 촌락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의 식량작물 중심의 자급적 농업에서 탈피해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경쟁력이 있는 상업적 농업을 모색하고 있는 촌락이다.

먼저 경기 방기에 의한 농업기능의 쇠퇴는 지리산지의 모든 촌락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하며 대개 지형·기후 등 자연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즉 농사에 불리한 자연조건을 가진 지역일수록 경작방기지가 급속히 늘어나며, 그것은 대체로 고도에 비례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산지의 모든 촌락들이 경작방기지의 증대로 농업기능이 축소되고 있지만, 저지대의 촌락에서는 아직도 다른 기능에 비해 농업기능이 가장 강한 반면, 고도가 올라갈수록 촌락의 농업기능이 약화되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일부 촌락들은 농업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한편 산지의 특수한 자연환경을 살려 기존의 주곡 중심에서 상업작물의 재배로 농업의 전환을 꾀하는 촌락들의 경우에도 경작방기지의 확대로 농업기능이 축소된 것은 매일반이었다. 즉 상업적 농업을 통해 기존의 경지면적이 더욱 확대 또는 유지되거나 과거보다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크게 늘어나서 촌락의 농업기능이 강화된 예는 거의 없으며, 조금이라도 묵히는 경지를 최소화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업작물을 재배하게 된 것이다. 현재 지리산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상품작물들은 약초류·차·과수류로, 산지의 자연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고 평지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은 물론 되도록 적은 노동력으로 경작이 가능한 것들이다. 이들은 밭은 물론 논에도 많이 심겨져 있으며, 갈수록 작부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 2) 임산물 생산의 재부상

산림자원을 이용한 지리산지 촌락의 기능 중 앞에서 언급한 狩獵, 製炭, 製紙, 木工藝 등은 모두 쇠퇴했거나 완전히 사라진 데 반해, 역시 산림자원을 이용한 養蜂과 나무의 樹液채취는 최근 들어 더욱 성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처음부터 농업을 보조하는 부업으로서 성립되었고, 따라서 과거에도 이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촌락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리산지에서는 풍부한 밀원식물을 바탕으로 벌통을 옮기지 않고 한 곳에 고정시켜 사육하며 일년에 한 차례 꿀을 채취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며 양봉을 하고 있다. 여러 기록으로 보아, 양봉은 조선 시대에도 지리산지 일대에서 성행하였으나,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이다. 그 이유는 양봉이 초기투자가 많고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단점은 있으나, 많은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도 높은 현금수입을 올릴 수 있으므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이 점차 쇠퇴하던 시기에 가장 적합한 부업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리산지의 거의 모든 촌락에서 집집마다 3-5통의 벌을 기르고 있으며, 양봉을 主業으로 하는 가구도 상당수 있다.

고로쇠나무와 거제수나무의 樹液채취에 대한 과거의 기록은 거의 전해오는 것이 없으나, 거제수나무의 수액은 일제시대에 雙溪寺 등 사찰에 이를 마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로쇠나무와 거제수나무의 수액을 먹는 것은 이 지역의 오래된 풍습이었고, 일제시대부터는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 주로 절에서 이를 마시고 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액채취가 지리산지 촌락의 부업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며, 특히 고로쇠나무의 수액이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 전국 각지에서 이를 복용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많은 촌락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채취하기 시작했다. 수액채취가 중요한 농가부업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데는, 먼저 별다른 시설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점, 채취시기가 이른 봄철의 약 20 여 일씩으로 한정되어 있어 농사철과 겹치지 않을 뿐 아니라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은 현금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액을 마시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마을에서 1-2일 숙박을 하기 때문에 식사제공·민박 등으로 부수적인 소득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지리산지 전역에서 이를 채취하는데, 특히 구례군 산동면·토지면, 하동군 화개면 등 지리산지 남부에서 가장 활발하다.

## 3) 관광업의 확대

이와 같이 농업을 비롯한 기존의 기능이 약화된 대신 1970년대 이후 지리산지 촌락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광기능이다. 지리산지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많은 역사 및 문화유적을 지니고 있어, 조선시대에도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1967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國立公園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관광객이 급증하고 그에 따라 관광기능을 지닌 촌락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전국적으로 도시의 생활환경은 계속 악화되던 반면 도시민들의 소득수준은 크게 향상되어 과거에는 특수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관광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華嚴寺·實相寺·雙溪寺 등 名刹 인근과 주요 登山路 입구에 위치한 촌락에는 음식점·기념품점·여관 등 관광객을 상대로 한 시설들과 이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관광의 주된 유형이 단체관광이었고, 지리산지 내부의 도로망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광기능을 가진 촌락은 위와 같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자가용승용차 소유자의 증대로 接近性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 관광의 유형도 가족단위의 관광으로 바뀌게 되면서, 때묻지 않은 인심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던 지리산지의 산촌 자체가 훌륭한 관광대상으로 가치를 얻게 되었고, 이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물론 1980년대 이후 지리산지 내부의 도로들이 차례차례 확·포장되면서 많은 촌락들에 자동차로 쉽게 접근이 가능해 진 것이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 들어 관광기능들이 강화된 촌락들은 대부분 고지대에 입지한 마을들로 자동차도로와 등산로가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한 것들이 많은데, 이들

마을의 주민들은 대개 민박과 식당을 운영하고, 방문객들에게 한복·고로쇠나무 수액 등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이들 마을의 주민들 중 상당수는 민박 등을 운영하기 위해 가옥을 개축 또는 신축하는 등 시설 마련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였는데, 투입된 자본의 대부분이 부채인 경우가 많다. 최근 불경기가 계속되자 이곳 주민들은 누적된 부채의 상환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관광업이 주기능이 된 마을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더욱 심하다.

한편 아직까지 관광기능은 미약하지만, 도로교통이 비교적 편리하고 자연경관이 빼어난 마을들에는 외지인들의 투자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영리를 위한 투자목적으로 농가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인근 도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별장을 지은 경우이며, 셋째는 한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아예 도시에서 가족 전체가 이주하여 주로 민박이나 식당 등을 운영하며 정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외지인들의 투자나 유입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므로 앞으로 이들 촌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일찍부터 촌락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서구국가의 경우에도, 이것이 지역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와 쇠퇴하고 있던 촌락을 활성화시킨 예가 있는 반면, 원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한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리산지 산촌들은 농업을 주기능으로 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생업기반의 마련이 곤란해 풍부한 산림자원에 의지한 다양한 기능들을 영위해 왔다. 이외에도 지리산지에는 일종의 교통촌락이라 할 수 있는 주막촌과 종교적인 기능을 가진 종교촌이 존재하였다. 농업을 포함한 이러한 촌락의 전통적 기능들은 대부분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쇠퇴하였으며, 대신 지리산지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을 활용한 관광기능 등이 새로운 기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농업을 비롯한 전통적인 기능이 약화되고,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기능을 얻지 못한 촌락들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현재는 산촌의 존립을 위한 적절하고 다양한 기능의 모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 참고문헌

- 金駟孫, 『濯纓集』, 韓國文集叢刊17,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1988.  
 金宗直, 『佔畢齋集』, 韓國文集叢刊12,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1988.  
 南孝溫, 『秋江集』, 韓國文集叢刊16,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1988.  
 梁大樸, 『清溪集』, 韓國文集叢刊53,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1990.  
 李陸, 『靑坡集』, 韓國文集叢刊13,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1988.  
 曹植, 『南冥集』, 韓國文集叢刊31,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本, 1989.  
 『世宗實錄地理志』, 朝鮮總督府中樞院, 1937.  
 『國譯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1967.  
 丁致榮, 1999, 智異山地 定住化의 歷史地理의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崔康賢 譯註, 1996, 遲庵 李東沆의 紀行錄, 國學資料院.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求禮 柳氏家의 生活日記 上(1851-1915).